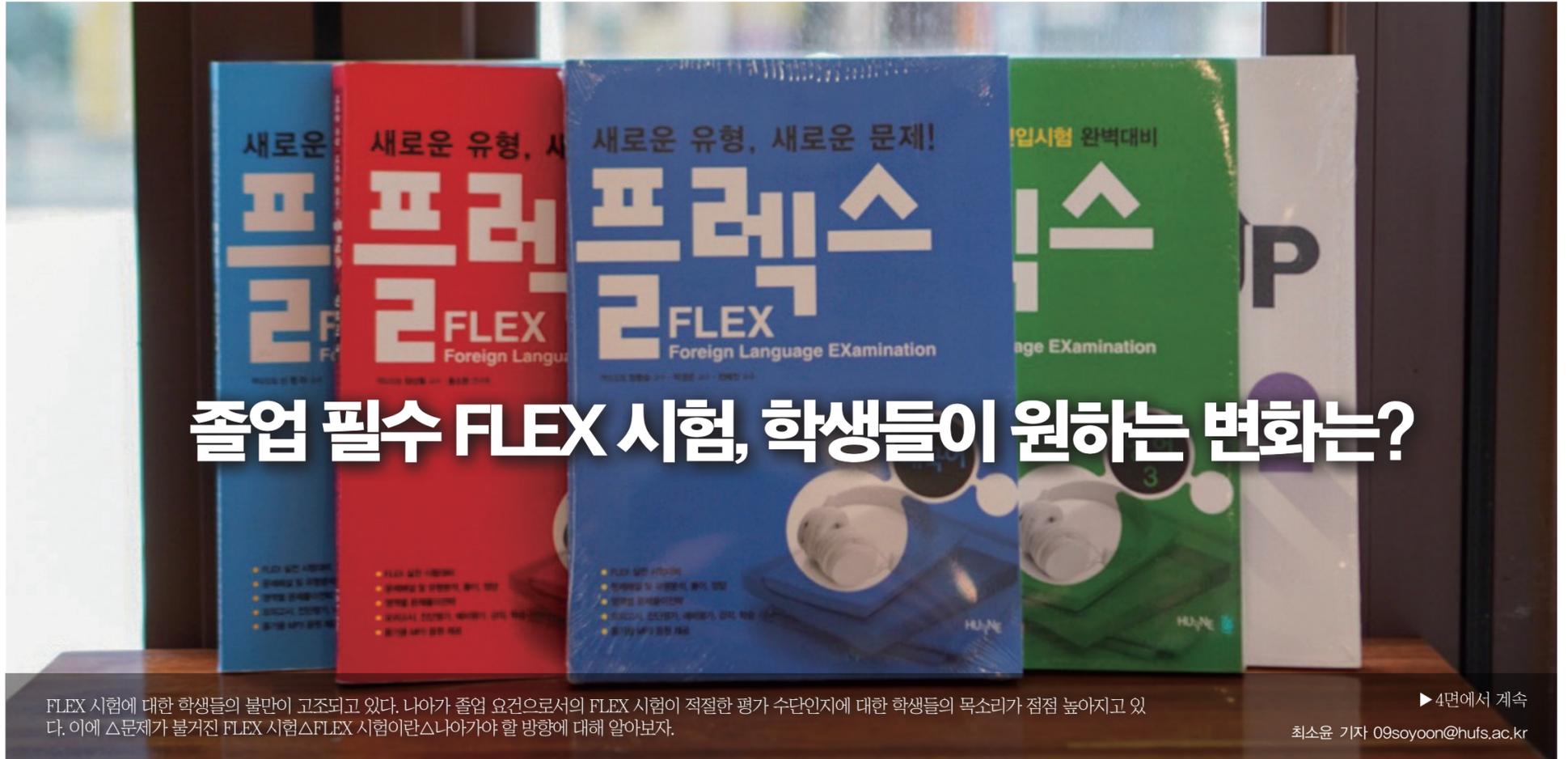


[후속보도] >> 3면
에브리타임 내 혐오

[기획] >> 4면
FLEX 시험 문제

[사문] >> 8면
스팸 문자

[학술] >> 9면
미국 대선



졸업 필수 FLEX 시험, 학생들이 원하는 변화는?

FLEX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졸업 요건으로서의 FLEX 시험이 적절한 평가 수단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스태프가 불거진 FLEX 시험이란 스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김원호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 스페인 십자훈장 수훈



▲ 김원호 우리학교 명예교수
(출처: 전략홍보팀)

지난달 31일 김원호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이하 김 교수)는 서울 용산구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린 수

훈식에서 펠리페(Felipe) 6세 스페인 국왕이 수여하는 시민공로 십자훈장을 받았다. 이날 스페인 국왕을 대신해 기예르모 키르크파트릭 데 라 베가(Guillermo Kirkpatrick de La Vega) 주한 스페인 대사(이하 기예르모 대사)가 훈장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스페인 포럼을 비롯해 양국 △문화계△산업계△정관계△학계 유력 인사들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다. 또한 스페인 라만차(La Mancha) 대학과의 MOU 체결과 기념식에 배석해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의 발전을 도모했다. 기예르모 대사는 “김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수훈의 배경을 전했다.

김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스페

인의 아시아교류재단 카사아시아(Casa Asia) 등 함께 일한 분들 덕분에 뜻깊은 훈장을 받아 영광이다”며 수훈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양국은 교육·문화 분야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교류를 이루고 있지만 공히 중견국으로서 국제정치·산업경제 부문에서도 전략적으로나 실의 면으로나 협력할 여지가 큰 만큼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공로 십자훈장은 스페인 국왕이 스페인과 국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의 훈장이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리우 브라쿠(Rio Branco) 수교 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 교수)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부담 중산지도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선 금융발전 유공 포상으로 총 19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저축의 의미가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 두푼 여유자금을 모아 자산을 형성한단 의미의 저축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도를 통한 금융의 혁신은 지속되어야 하며 금융의 성장을 위해선 소외되는 자를 포용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인의 헌신과 노력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더 나은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데 크게 기

여했으며 라인·옵티머스(Lime·Optimus)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및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태스크포스(Task Force) 위원으로서 금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과 정착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최 교수는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출신의 법학자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경제법△행정법△환경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법무부 검찰위원회△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한국의료산업진흥위원회 등 주요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미래의 언론인, 110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4. 11. 14(목) ~ 2024. 11. 21(목)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 기간: 2025.01.20. - 2025.02.14. (설 연휴 주간 01.27.-01.31. 제외))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면접: 확정 후 개별 연락 예정

입기: 25-1학기~26-1학기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문의: 남우현 편집장 (010-2101-1877)

이탈리아 도서관 개관식 및 2024 세계이탈리아어 주간행사 개최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도서관 개관식 및 세계이탈리아어 주간 행사가 개최됐다. 이탈리아 도서관 개관식은 본관 601호에서 진행됐으며 △김민정 재무·대외부총장△김시홍 이탈리아어과 학과장(이하 김 학과장)△김인호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이하 김 대표)△김지우 번역가△마켈라 린다 마그리(Michela Linda Magri)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장△박문정 이탈리아어과 교수(이하 박 교수)△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이하 에밀리아 대사)△에리카 스파사(Erika Sfascia) 주한 이탈리아문화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에 참석한 에밀리아 대사는 “책이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이탈리아 도서관은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뜻깊은 장소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4 세계이탈리아어 주간 행사가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환영사 및 축사△페란테(Ferrante) 다시 읽기△단체 사진 촬영△영상 공모전 상영회 순으로 진행됐다. 에밀리아 대사는 “책을 통해 문화 교류가 강화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에 서로의



▲2024 세계이탈리아어 주간 행사 모습 (출처: 도서출판 한길사)

문화를 소개하는 대사로서 이러한 행사가 개최된 것이 기쁘다”고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대표는 “페란테의 책은 한국에 이탈리아 문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

게 했다”며 “세계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을 책을 통해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나의 눈부신

친구’를 집필한 페란테 작가는 ‘페란테 열풍을 일으킬 만큼 많은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사랑받았다’고 설명했다.

본 행사 3부에선 ‘이탈리아어와 책: 행간 사이의 세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참여한 영상 공모전의 상영회가 진행됐다. 공모전에 11명의 학생이 참여해 이탈리아 문학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로마 왕복 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돼 학생들의 열띤 관심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문화적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학생들에게 이탈리아 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우리학교,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4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지난 6일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과 최성은 폴란드어과 학과장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4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내가 사랑하는 폴란드와 한국의 공간’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의 저학년 부문에선 2학년 김수경 학생이 고학년 부문에선 4학년 황서울 학생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폴란드 교육부가 제공하는 6개월 어학연수 장학금 및 서머스쿨(Summer School) 장학금과 폴란드 현지 공공기관 인턴십 등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마련한 기념품도 수여됐다.

심사를 위해 우리학교를 찾은 아르투르 그라지우크(Artur Gradziuk) 주한 폴란드 대사는 “지난 10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Poland) 대통령의 국민 방문으로 ‘K-방산의 큰 손’이라 불리는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50조 규모의 국산 무기 추가 구



▲제14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출처: 전략홍보팀)

매를 결정하는 등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며 “이에 폴란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에 대

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경연대회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인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는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및 폴란드 사이의 교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폴란드어 전문 인재를 육성해왔다. 제14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및 시상식 하이라이트 영상은 향후 외교부 서포터즈 포포랑 TV 및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우리학교-외교부, ‘제13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공동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 8일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단국대학교(이하 단국대)△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외교부한국·브라질소사이어터와 공동으로 제13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엔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오승준 외교부 중남미국 남미과장△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터 회장△김영철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관련 기관 인사가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 포르투갈어과 교수△마리아 이네스(Maria Inés)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부산외대 포르투갈어 교수△임소과 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우리학교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해당 대회는 ‘크리에이티브 영상 공모전’을 주제로 예선 및 본선이 진행됐다. 11개 팀이 진출했으며 △우리학교△단국대△부산외대△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 포르투갈어 실력을 발휘했다. 대회에 참가한 신서연(서양어·포르투갈어 24) 씨는 “포르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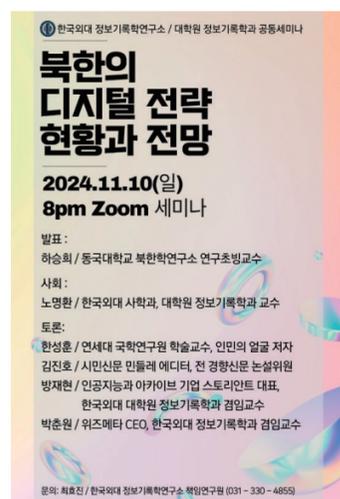
갈어에 열정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극을 받았다”며 “전공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스스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외교부가 외국어를 주제로 개최하는 유일한 행사다. 외교부는 대회를 통해 포르투갈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함으로써 ‘외교 다변화’를 위한 대(對)브라질·포어권 외교의 저변을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해로 13주년을 맞이하는 포르투갈어를 매개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을 비롯한 포어권 국가 간의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의 후원을 받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포르투갈어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공공역사 큐레이트스케이프 및 북한 디지털 현황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지난 8일 우리학교 정보·기록학 연구소는 우리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및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공공역사 실천과 아카이브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효진 정보·기록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된 8일 세미나에선 공공역사 분야 전문가인 마크 티보(Mark Tebeau)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역사학과 부교수(이하 티보 교수)가 참여해 공공역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티보 교수가 수행한 연구 중 ‘큐레이트스케이프(CurateScape)’를 이용해 클리블랜드(Cleveland) 지역 사료를 수집·관리하는 ‘클리블랜드 히스토리컬(Cleveland Historical)’ 사례를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지도 기반 디지털아카이브(Digital Archive) 전시 플랫폼 큐레이트스케이프는 역사적 자료를 시정각적 요소와 결합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현장에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티보 교수가 수행한 클리블랜드 히스토리컬 프로젝트에선 미국 오하이오주(Ohio) 클리블랜드 시와 주



변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큐레이트스케이프의 위치 기반 지도 기능을 이용한다. 이는 이용자가 클리블랜드 전역의 다양한 역사적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지난 10일 진행된 세미나에선 ‘북한의 디지털 전략 현황과 전망’에 대한 허승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교수의 발표와 함께 북한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논의했다. 앞서 언급한 큐레이트스케이프의 발전은 북한과의 각종 분야에 있어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남북 관계△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북한의 국내 정치에 관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노명환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소장은 “전문 역사가들의 학술연구를 넘어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고 공공의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시공을 초월해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실효성 논란 커지는 폭력예방교육, 변화가 필요한 때

폭력예방교육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내용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 많은 학생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또 본래 교육의 목적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가중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행 현

황△성적 열람과 연계된 폭력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폭력예방교육 실행 현황

우리학교는 교내 인권센터 주관하에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인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매해 2시간 이수해야 하며 대학은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때 학교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75% 미만이거나 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해당 학교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감사 대상에 등재△기관장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부진 기관 선정 사실의 언론 및 인터넷 공표와 같은 제재를 부과받는다.

◆성적 열람과 연계된 폭력예방교육

현재 우리학교는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이 불만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소재현(영어·영문 24) 씨는 “성적 열람을 빨리하고 싶은데 성적과 관련 없는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들어야만 해서 답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타 대학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등이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교육 이수 시 최대 5시간의 인성품을 인정해왔고 지난 2022년부터 교육 미이수 시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 확인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가했다. 반면 이와 같은 지침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과거 성평등센터가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시 학기 말 성적 확인을 못 하게 하는 강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해 현재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조정현 우리학교 인권센터장(이하 조 센터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열람 제한 관련 규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정의 무교육으로서 1년에 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며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별도의 방안이 없기에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적으로 의무화해 성적열람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정 기간에만 열람이 제한되고 성적 입력 확정 후 확인기간 동안엔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폭력예방교육은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인가

외대학보에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지 않다(62.5%) △그렇지 않다(25%) △보통이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교육의 내용이 지루하고 다소 피곤하다는 점 △매년 교육 영상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또 폭력예방교육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62.5%) △그렇지 않다(37.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폭력예방교육을 주의 깊게 들을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며 “틀어놓고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 B 씨는 “교육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시대상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 센터장은 “물론 매년 항상 새롭고 더 좋은 내용을 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2시간이란 제한 내에서 매년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며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더라도 계속 동일한 내용을 교육하는 게 이 교육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다 나은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선 △영상의 숏폼(Short-form)과 카드뉴스로의 대체△오프라인 교육 실시△일정 단위 자선 학점 부여를 통한 학생 참여 유도△자진 참석 시 봉사시간 부여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알레로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과거 △인권주간행사를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홍보 진행△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 대면 교육 실시△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비교과 미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교육 수단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양대의 경우 인권 주간을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되더라도 반드시 2시간의 법정이수시간을 충족해야만 하기에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법정이수시간인 2시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며 실제 교육의 질적 선택 및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즉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능동적인 대책 도입 역시 시급한 시점이다.

상술했듯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불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그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여러 의견을 반영한 교육 내용 개편과 다양한 교육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후속보도

익명이라는 방패, 에브리타임 내 ‘대전’

지난 1069호 심층 기사에선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표현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여전히 에브리타임(이하 에타)과 같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우리학

교 학생들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학교 에브리타임 내 혐오 표현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에브리타임 내 혐오 표현 현황

지난 2월 약 42만 명의 새내기들이 에타에 가입하면서 에타의 누적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은 ‘대학생 필수 앱’로 불리며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타 자체가 지닌 익명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혐오가 확산되며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에타에선 특정 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제로는 이른바 △설글대전△성별대전△입결대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설글대전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학생들이 서로를 비교 및 비하하는 발언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쟁이다. 이는 △상호 간의 교류 감소△캠퍼스 간 갈등 조장△양 캠퍼스의 분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설글대전뿐만 아니라 성별대전 역시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에타의 ‘HOT 게시판’에선 여자 대학교의 공학 전환에 관한 글이 올라와 성별대전이 벌어졌으며 해당 글은 공감을 300개 이상 받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별 갈등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며 상호 간의 도를 넘은 혐오 발언으로 이어졌다.

입결대전은 입시 기간에 입시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으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수시와 정시 같은 입학 전형을 빌미로 학생들 간의 비난이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수시와 정시 전형의 근본적인 평가 방식 차이에 따른 입학 성적 비교가 대두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우월성을 주장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조롱하거나 특정 전형 출신 학생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이어진다. 또한 타 대학교의 입시 성적과 비교해 우리학교의 순위를

강조하려는 글들도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타 대학을 비하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이와 같은 논쟁은 단순한 의견 교류를 넘어 혐오와 비난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타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사용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혐오 표현을 남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계정을 구매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카카오톡(Kakaotalk) 오픈 채팅방에서 ‘에타’를 검색한 결과 계정을 구매 및 판매하는 채팅방이 3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익명의 특성상 특정 집단의 혐오와 비난은 강화되며 그로 인한 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학교 공동체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에타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에타의 신고 시스템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글을 보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조로 이용자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혐오 게시글을 반박하는 사용자가 커뮤니티 이용규칙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신고를 당해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플랫폼(Platform)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혐오 표현과 관련한 게시글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Naver)에서 활용 중인 클린봇(Cleanbot)은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으로 악성 댓글을 탐지해 댓글을 자동으로 숨김 처리한다. 이는 △게임△뉴스△스

포츠 등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적용돼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장 맥락을 고려해 모욕적인 표현이나 무례한 댓글까지 탐지하고 있다. 또한 불쾌함을 조성할 수 있는 게시물의 경우 조회 전에 경고창을 띄우는 등의 노력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구글(Google)의 세이프서치(SafeSearch)는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내용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욕 행위는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실상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의 경우 혐오 표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혐오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대학 커뮤니티가 안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에타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자유로운 표현 문화 정착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악성 게시글이 난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선 학생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발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익명이란 가면을 벗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졸업 필수 FLEX 시험, 학생들이 원하는 변화는?

졸업을 앞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언어 능력 시험'(이하 FLEX 시험)은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 중 하나다. 그러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이 시험이 오히려 많은 학생

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졸업 요건으로서의 FLEX 시험이 적절한 평가 수단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제가 불거진 FLEX 시험△FLEX 시험의 구조 및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가 불거진 FLEX 시험

지난달 치러진 이번 해 마지막 시험인 FLEX 시험 이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FLEX 시험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들에서 학생들은 FLEX 시험을 위한 '공부 환경 및 수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중 한 학생은 "듣기의 경우 저작권으로 인해 음성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인 인증 시험임에도 대비용 공식 교재가 출판된 지 오래됐으며 기출 문제 또한 제공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FLEX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강의 및 교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외대학보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1.3%가 '해당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 73.8%의 응답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공식 교재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교재에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다르게 실제 시험이 출제돼 혼란스럽다"며 "교재와 시험 간의 문제 유형 차이로 인해 FLEX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단 불편도 지적됐다. 위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약 63.1%는 시험을 치르기 전 제공되는 안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B 씨는 "시험 전 날 알림 문자 등을 보내주는 등 타 언어 시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안내는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신력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FLEX 시험이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도 및 구사 능력을 올바르게 반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6.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C 씨는 "내가 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 같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시험 자체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FLEX 시험 결과의 활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에선 '스페인어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성이 떨어진다'란 의견을 비롯해 '일본어의 경우 JLPT(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가 일반적으로 어학 능력의 기준이 될 뿐 FLEX 시험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와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일련의 불만에 대해 성승현 우리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과장(이하 송과장)은 "다른 언어자격증 인정 관련 사항은 △외국어연수평가원△지식출판콘텐츠원△학사종합지원센터△학과 등 관련 부서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FLEX 시험의 구조 및 현황

이와 같이 학생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FLEX 시험은 우리학교와 외국어연수평가원이 공동 개발한 시험으로 △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의 7개의 일반 언어시험과 △몽골어△아랍어△폴란드어△헝가리어 등 20개의 특별 언어시험으로 나뉜다. 여러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FLEX 시험은 각 언어 특성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FLEX 시험은 이를 통해 언어 능력 전반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각 언어 습득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학교 FLEX 센터 홈페이지

이러한 FLEX 시험에 학생들이 민감한 이유는 많은 어문학과의 경우 학과의 졸업 요건에 FLEX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소속된 학과의 요구에 맞는 FLEX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해당 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27개 학과는 FLEX 시험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편 서울대학교의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또한 졸업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거나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FLEX와 다소 차이가 있다. 자료 제공과 시험대비의 어려움에선 FLEX 시험과 SNULT 시험 모두 기출 문제나 학습 자료 제공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SNULT 시험은 시험 유형과 난이도가 일정한 편이라 기존 응시자들의 후기를 통해 시험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앞서 상술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FLEX 시험이 과연 졸업을 위한 공정한 평가 도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시험의 실질적 역할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험의 구조가 언어 전공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FLEX가 충분한 실력 검증 없이 형식적인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졸업이란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FLEX 시험은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가 있는 평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FLEX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한 자료와 연습 문제 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토익(TOEIC)을 비롯한 다른 공인 어학 시험처럼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시험 경험을 파악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실제로 위의 설문조사에선 '기출 문제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관식 응답이 주를 이뤘다. 나아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교재 내용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FLEX 시험이 공인된 자격증으로서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주요 시험과의 차별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교수와 연계해 전문적인 대비 강의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기본적인 안내 문자 발송 및 시험 안내 자료 제공도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송과장은 "교내 졸업시험 대비 학습 자료가 부족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센터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정책상 기출 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FLEX 시험의 개선은 단순히 졸업 요건을 넘어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언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FLEX 시험이 실질적인 언어 능력 평가 도구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생이 진정한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FLEX 시험이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 평가, 더 나은 약속을 위해선

학기가 저물어감에 따라 우리학교 양캠퍼스(이하 양캠)는 총학생회장 선거가 한창인 시점에 도달했다. 이 시기마다 빠짐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비판의 목소리다. 총학생회가 학내 문제 해결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또는 선거 당

시의 약속을 얼마나 실현했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설캠·글캠 총학생회 공약 이행 현황 △설캠·글캠 총학생회 공약 이행 실태 조사스나이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설캠·글캠 총학생회 공약 이행 현황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학생사회의 독립기구인 제 58대 중앙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중공평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완료(100%)△정상 추진(50% 이상)△일부 추진(30% 이상)△보류△폐기로 분류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으로 전체 공약 44개 중 △완료 11개 △정상 추진 19개 △일부 추진 10개 △보류 3개 △폐기 1개로 공약 이행 현황이 조사됐다. 중공평위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공약은 '2024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 창업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으로 이번 해 퀸쿠아트리아의 일정 변동에 따라 전야제가 삭제돼 폐기됐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의 경우 제45대 글캠 총학 '너울'에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체 공약 19개 중 △완료 7개 △이행 중 6개 △이행 시도 5개 △이행 예정 1개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많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어려운 공약도 존재했다. 오창화(사회·행정 21)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오 회장)은 공약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학교 건물의 세부 주소 부여'를 꼽으며 "△구정 △법인△학교 본부 등 여러 기관과 얽힌 문제로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교육비·재산 문제까지 복잡해서 작용해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내 사안 중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선 오 회장은 "이번 해 △무전공 입학제도△법인 문제△졸업학점 축소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아 어려움이 컸다"며 "특히 법인 축이 학교 발전을 위한 전입금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총장 선임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서 지나치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제약이 컸다"고 밝혔다.

박상우(국제지역·러시아 20) 글캠 부총학생회장(이하 박 부회장) 역시 공약 실현이 쉽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흡연 부스 확충 및 문화 개선'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 부스 한 대당 설치 비용이 2,000

만 원을 초과하고 매년 필터 교체와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미 설치된 부스의 관리 문제까지 겹쳐 학교 축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창업 교과목 확충에 대해선 "이미 다양한 취·창업 교과목이 개설됐으나 학생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 학교 축이 추가 개설에 소극적이었다"며 "교과목 확충보단 관련 기반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느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렇듯 총학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설캠·글캠 총학생회 공약 이행 실태 조사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캠 학생들은 이번 총학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문화·브랜드'와 '시설' 부문이 각각 30.8%와 23.1%로 총학이 잘한 부분으로 높이 평가됐다. '문화·브랜드'에선 봄 축제의 성공적인 출현진 구성과 다양한 복지 활동이 주된 호평을 받았고 '시설'에선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운동장 잔디 설치△와이파이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약 이외의 사안에도 총학이 적극적

으로 대응한 점이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학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3.1%가 '매우 만족' 그리고 76.9%가 '만족'을 선택해 설문 응답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쓰레기통 정비△봄 축제△양심 생리대 제공△와이파이 개선△이동학생회 등의 다양한 복지 활동과 잔디광장에서 열린 다양한 학내 행사가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글캠은 총학의 주요 활동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와 '학교' 부문이 각각 48.3%와 34.5%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정작 설문 응답자의 86.2%가 '매우 불만족'으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행정△부실한 축제 기획·실행△소통 부족△총학의 공약 이행 미비 등을 이유로 들며 "공약 19개 중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축제의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예산 사용 내역 및 공약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가적으로 "△교내 와이파이 개선△교양관·도서관 리모델링△학내 시설·학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번

식 지원 등의 온·오프라인 행사는 학생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증진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교내 환경을 목표로 주요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장학금 정보 적극 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 △학내 범죄 예방·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학업·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데 힘썼다. 특히 학교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소통 창구를 넓힌 점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를 강화하는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선 설문조사에서 향후 설캠 총학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라는 사안으로 △모집 광역화 대응△장학금 확대△졸업 이수 학점 축소·3중 전공 허용△학점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제안됐다. 추가로 △생·난방기 보수△축제 무대 높이 조정△학내 주차 문제 개선 등 다양한 학사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기존 사업의 유지 등이 언급됐다. 글캠에선 △와이파이 개선△예산 내역 투명화△SNS 외의 공지 채널 확보 등 실질적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학사 운영에 대해선 "통폐합된 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학사 운영에서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총학으로서 활동한 소감을 묻는 질문엔 오 회장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고 시행착오 속에서도 학생들과 소통하며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 또한 "업무 인수인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기도 했고 예산과 재정 문제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아쉬웠다"며 "학생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은 앞으로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 기사를 접하게 될 학우들에게 오 회장과 박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오 회장은 "이번 해 총학 활동 동안 학우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음 해엔 총장 선출이란 중요한 의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학우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 또한 "8개월의 임기 동안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학우들 덕분에 우리학교의 밝은 미래를 후배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공약 이행은 총학에게 지속될 과제이며 학생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앞으로의 총학의 행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래도록 외대에 남길,

▲설캠·글캠 총학생회 로고



설문조사를 통해 양캠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글캠 학생들은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투명한 소통과 행정을 요구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해 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 총학의 경우 최근 학생 복지와 소통 강화를 위해 여러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공동구매 활성화△농촌 봉사활동 재개△다양한 캠퍼스 행사 등의 공약을 추진한 홍익대 총학은 실질적인 혜택과 소통을 중시하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성공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마스코트 굿즈(Mascot Goods)나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생활비 절감과 학교 브랜드 가치 증대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이 재개되며 학생들은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와 중간·기말고사 간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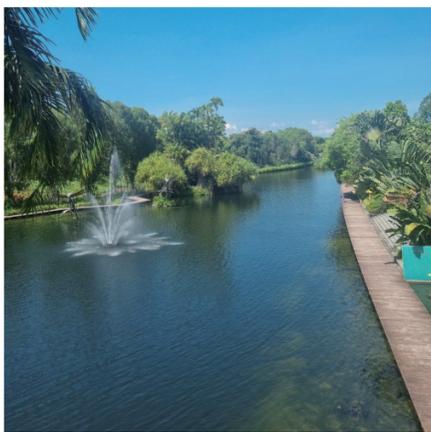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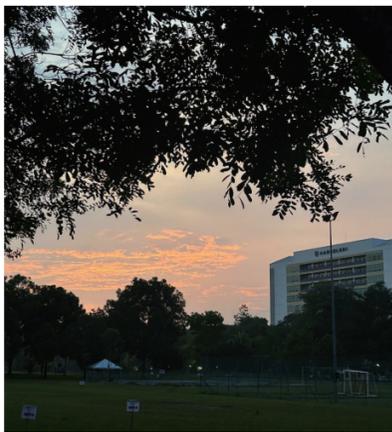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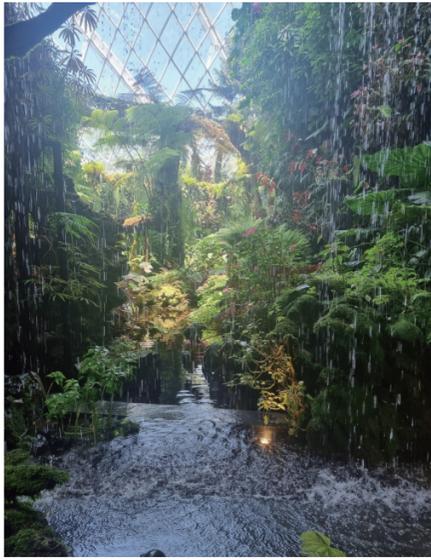
자유로웠던 말레이시아

지난 1학기 난 우리학교 7+1 프로그램을 신청해 말레이시아(Malaysia)의 말라야 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공부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현지에서 직접 가서 전공어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었고 말레이시아는 그간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건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라야 대학교에선 주로 말레이학부의 수업을 현지 학생들과 함께 들었다. 초반엔 빠른 속도의 말레이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모든 수업에 조별 과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매 수업마다 현지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차츰 수업에 재미를 느끼게 됐다. 교수님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며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에 수업을 통해 단순히 말레이어뿐만 아니라 문화이나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엔 스카인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매우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권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그동안 몰랐던 문화를 배우나갔다.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 주말엔 되도록이면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 말라야 대학교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주요 관광지 및 다양한 지역을 쉽게 가볼 수 있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수업이 끝나고 혼자 공항으로 가 스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 스타크 등 다양한 인접 국가에도 놀러가곤 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여행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홀로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던 사실이 즐겁게 느껴졌다. 또한 비행기나 택시 등 이동수단에 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기에 부담 없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 휴일이 많은 말레이시아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해외로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한다.

졸업이 다가오는 시기에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한편으론 불안했지만 무척대고 간 말레이시아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시간은 취업이나 졸업 등 복잡한 문제를 두고 걱정하기보다 그냥 현실에 집중하며 온전히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유로웠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험 덕분에 앞으로의 시간도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하형(아시아·마인어 21)

프랑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사랑, 열정, 그리고 허무의 삼중주 -



사랑은 무엇인가. 심리학자 로버트 스텐버그(Robert Sternberg)는 그 유명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은 Δ 열정 Δ 친밀 Δ 헌신으로 구성된다고 역설한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마리 위고(Victor-Marie Hugo)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사랑은 위대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4살의 프랑수아즈 사강(Françoise Sagan)은 "사랑에 대해 세월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견디게 해 주는 것뿐이다"며 사랑의 허무와 덧없음을 강조한다.

30살이 된 주인공 폴(Paul)(여자)은 자신보다 어린 로제(Rosé)(남자)란 남자와 몇 년째 교제 중이다. 폴은 이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로제와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한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이들 사이엔 권태란 큰 장애물이 자라고 있었다. 로제는 늘 데이트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는 밤늦게 다시 거리를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견고하고 배회하고 싶고 어찌면 늦은 밤의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며 새로운 여자를 찾는다.

그러던 중 권태에 젖어있던 폴에게 '시몽(Simon)(남자)'이란 25살의 젊은 남자가 다가온다. 시몽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철없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구애한다. 데이트 중인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란 시답잖은 질문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이런 서툰 방식이 싫지만은 않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에 그녀는 설렘을 느끼고 그와의 연애를 계속 상상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치 로제의 젊은 시절 같은 시몽과 만나게 되면 시간이 흘러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두려워진다. 즉 지금의 연인인 폴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나중에 시몽도 자신을 그렇게 대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후 시몽과의 사랑이 발전하게 되지만 이를 눈치챈 로제는 그녀를 잡기 위해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사과하고 눈물 흘린다. 사실 그의 사과가 중요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에 로제에게 되돌아간다.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으니 이전보다 로제와 더욱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이 저녁 식사에 늦는다는 로제의 전화를 받는다.

사랑은 허무하다. 로제의 뉘우침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몽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불쌍해 보이는 폴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이리저리 바꿨다.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영원성이 아닌 순간적인 열정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에 대해 "내가 믿는 것은 사랑의 열정이다"며 "그 이외엔 사랑의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어쩌면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며 당장 내일 180도 바뀔지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회피하기 위한 순간의 타오르는 열정일지도 모른다.

박진하 기자 08jinj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MBA]

1. 전형 일정

■ 일반전형

구분	일시 /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턴넷 작성)	2024.10.28(월) 09:00 ~ 11.29(금)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일 24시간 작성 가능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24.10.28(월) 09:00 ~ 11.29(금) 22:00	경영대학원 사무팀 (사이버관 502호)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면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면접 시 사전 안내)
면접 전형	2024.12.7(토) 10:00	사이버관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14:00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biz.hufs.ac.kr	
합격자 등록	2024.12.16(월)~12.20(금)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특별전형1

구분	일시 /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턴넷 작성)	2024.12.9(월) 09:00 ~ 2025.1.3(금)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일 24시간 작성 가능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24.12.9(월) 09:00 ~ 2025.1.3(금) 22:00	경영대학원 사무팀 (사이버관 502호)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면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면접 시 사전 안내)
면접 전형	2025.1.11(토) 10:00	사이버관	
합격자 발표	2025.1.17(금) 14:00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biz.hufs.ac.kr	
합격자 등록	2025.1.20(월)~1.24(금)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과정	모집학과	전공	모집인원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과 (Full-time MBA, 주간 수업)	재무/회계	○○○명
		인사/조직	
	경영관리학과 (Evening MBA, 저녁 수업)	국제경영	
		경영정보	
경영금융학과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학과 (주말 수업)	글로벌경영		

3. 지원 자격

-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 나.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 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KLPT)3급 이상 소지자.
 - 라.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 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 대학의 전공 학과와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할 수 있음.

4.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학부 성적 : 20%, 면접 및 서류 평가 : 80%)

5. 입학 장학금

외대동문(사이버외대 포함), 군무원, 군인공제회 직원, 공무원, 각급교과 교직원에게 입학 시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 군인인 4개월기 동안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하며 매학기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장학금 지급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따른다.

6. 접수방법 및 문의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biz.hufs.ac.kr : 경영대학원 - 입학안내)
연락처 이메일 : hufsmba@hufs.ac.kr
전화번호 : 주간과장(02-2173-2399) 야간과장(02-2173-2408)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주간·Evening·주말)
2025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안내

■ 입학문의: 경영대학원 주간, 주말 사무팀 02)2173-2399
Evening 사무팀 02)2173-2408

■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태원 참사, 앞으로의 안전한 청년들의 모임을 위해

2년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으며 특히 청년층의 모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의 안전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고시켰다. 그러나 2주기를 맞이한 지금 추모의 열기는 높아진 반면 사건에 대

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청년 안전 문제△다중 밀집 시설 사고의 특성과 원인 분석△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태원 참사와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청년 안전 문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Halloween) 축제 도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같은 청년들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해 지난 12일 우리학교 생활자치도서관은 유가족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우리학교 생활자치도서관은 그날의 이픔을 기억함과 더불어 참사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구조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밀집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은 여전히 이태원이나 성수동과 같은 이른바 '핫 플레이스(Hot place)'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2년 전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 드러난 안전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모임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를 남겼다. 이에 대해 박윤서(LT 22) 씨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로 대규모 행사나 모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며 "당시의 참사에 대한 충격으로 친구들과 대규모의 공간에서 모임을 갖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중 밀집 시설 사고는 과거에도 다수 발생한 이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2003년 대구에서 발생했던 지하철 화재 사건은 내부의 불길의 급속히 번지며 192명의 사상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낳은 역대 최악의 지하철 화재 사고로 회자된다. 당시 열차엔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된 상태였기에 대피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와 화염이 번져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했던 점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반복되는 문제지만 사건에 대한 추모와 분쟁은 지속되는 반면 구체적인 문제 분석 및 해결책 모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그 수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안전 관리 기관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더불어 사전 준비 단계에서도 안전 관리 기관은 집단 모임에서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대처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론 중심의 형식적 안전교육을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개선하겠다"며 안전 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표준안엔 축제나 집회에서의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지난 2015년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설한 '안전한 생활' 과목에서도 축제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비상 대처 교육 역시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적 규제 미흡 역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 규제와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됐고 이는 감독 부실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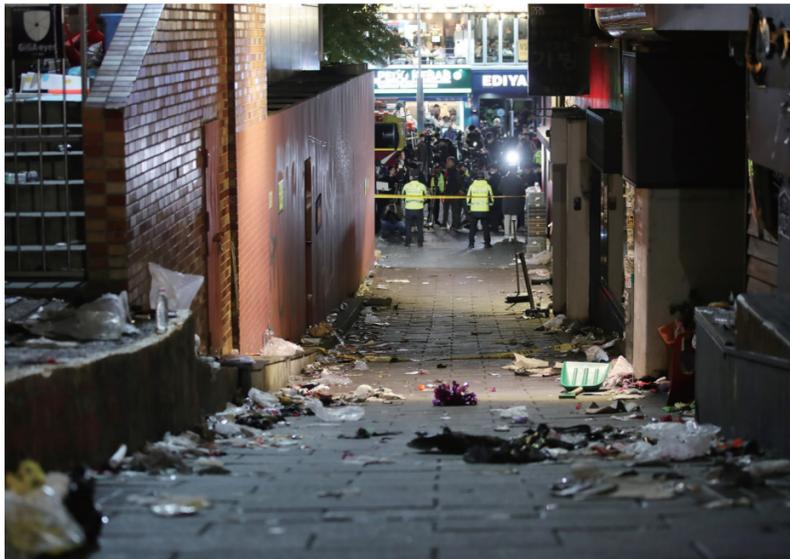
전관리에 나섰다. △경찰△소방△행정 주체 모두 시험 종료 후 변화기에 수험생들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합동으로 현장 관리를 진행해 단계별 대응 준비를 마쳤다.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부산 불꽃놀이 축제'에선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함과 더불어 인파 통제를 위해 안전 관리 인력이 충분히 배치된 덕분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안전 관리 기관과 지역 사회에선 집단 밀집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선 참사 이후 중구 리리아트고등학교 체육교사와 학생들이 제작한 '학생용 군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을 오는 28일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해 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이 포함돼야 하며 청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행사 주최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상술했듯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선 반드시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재난정보 분야 전문가인 이연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우 2001년 7월 21일 효고현 아카시시불꽃축제 때 11명이 압사하고 18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을 대폭 개정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의 행사가 있는 경우 혼잡경비를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공고히 할 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각심을 기반으로 집단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대학 및 청년 단체는 정기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집단 밀집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해 청년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안전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안전 수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청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구성원이기에 이들의 안전은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청년들 스스로가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집단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안타까운 사고들에 대한 사회의 응답이고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초석이며 지금 우리 모두에게 놓인 무겁지만 필연적인 책임이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사고를 초래했다. 한겨레에서 취합한 2015년 경찰청 발주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행사에서 혼잡 경비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이미 제기됐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자들에게 대한 충분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정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단 밀집 시설에서의 청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안전 기관들은 집단 밀집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차종호 호원대 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주최자가 없거나 매뉴얼(Manual)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모든 상황이 매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모범 사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4일에 도심 변화가의 인파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현장안

◆다중 밀집 시설 사고의 특성과 원인 분석

이태원 압사 사고는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했던 행사에서 벌어졌기에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래된 사고이므로 이 참사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당시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행동하다 보니 개개인의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밀집된 인파 속에서 개인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와 같은 안전 관리 기관의 대비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대규모 행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 특히 행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을 알려주는 정보관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잔존하는 경찰 인력들마저도 마약 사건에 대한 경계로 군중 통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충분한 거리 통제가 벌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이 악화됐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져 피해 규모가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늘어가는 스팸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받아봤을 [국외발신]으로 시작하는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68%나 증가했다. 스팸문자는 투자사기

및 스미싱(smishing)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한 음란성 문자의 경우 청소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스팸문자 문제 현황△스팸문자 문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스팸문자 문제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68%나 증가했다. 2년 전에 비해선 10배 이상 폭증한 모습이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KISA가 함께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한 달 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은 2022년 대비 32건 증가한 10,388건이다. 이중 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은 147건으로 2022년 대비 048건 줄었으나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은 891건으로 오히려 368건 증가한 모습이다. 나아가 지난해 스팸 문자 발송량은 총 41억 2801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스팸문자의 유형은 △도박(47.4%)△불법대출(20.7%)△금융(11.5%)△성인(6.5%)△부동산(4.8%)△스미싱(3.4%)△대리운전(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송지의 경우 국내 발송 비중은 81.2%로 2022년에 비해 4% 감소했지만 국외 발송 비중은 16.7%로 2022년(9.9%)에 비해 6% 이상 증가했다.

스팸 문자량의 증가와 함께 스팸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스팸 신고 건수가 3,372만 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지난해에 비해 약 36.9%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인광고 스팸 신고의 경우 4년 전 51만 4,254건에서 지난해 976만 1,35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총 996만 7,534건으로 지난해 성인광고 스팸 신고 건수를 전작에 넘겼다. 이와 맞물려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문자 결제 사기 피해 건수는 1,673건으로 4년 전에 비해 8배 늘어났으며 피해 금액은 무려 144억 원에 달했다.

스팸 문자는 귀찮음과 더불어 투자사기 및 스미싱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날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다루지고 있다. 이정민(통번역·독일어 23) 씨는 "하루에 스팸문자를 10개 이상 받아본 적 있다"며 "중요한 연락인 줄 알고 확인했다가 기본반 나빠졌다"고 스팸문자로 인한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들어 급증한 성인광고 스팸문자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발송되고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송예인(C&T·투월 24)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사촌동생에게도 성인광고 스팸문자가 발송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스팸문자 문제 원인

스팸문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재판매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팸문자 발송은 불법 스팸마*가 문자 발송을 의뢰하면 이를 문자재판매사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문자중계사를 거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스팸문자의 97.9%가 이러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이후 스팸 문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자중계사가 문자재판매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통신 내용을 타인이 감청하거나 엿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재판매사가 발송하는 모든 문자 내용과 사용자 동의 여부를 문자중계사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문자재판매사는 불법 스팸마와 문자중계사 사이에서 불법 스팸마가 보내고자 하는 문자가 스팸문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정해주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SBS의 취재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실제로 통신사에 문자를 보냈을 때 발송이 성공

했는지 실패했는지 점검해주며 스팸 문자의 내용을 스팸 차단에 걸리지 않도록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심지어 스팸 차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피어쓰기나 맞춤법에서 일부러 오류를 내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문자재판매사는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회사 수가 1,200여 개로 최근 들어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선 "특정 문자중계사의 불법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적격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익을 위해 불법 스팸마들과 결탁한 업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정 문자중계사의 스팸 신고 비중은 2022년 14.99%에서 지난해 54.33%로 증가했다. 단순한 과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수많은 문자재판매자들이 스팸문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정돼 있는 관련 제도 및 법률의 미비점 또한 스팸문자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각자의 미비점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먼저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로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문자중계사는 문자재판매사의 신청 정보 일치 여부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등의 자격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문자재판매사들의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현재 인증 단계에서부터 문자재판매사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을 기준으로 인증 신청을 한 문자재판매사는 전체 1,174개 중 94개로 약 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가 미지수"라며 해당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연합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비지 대량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의 △규제△등록△신고 등을 다루는 법률로 특히 전기통신사업자의 운영 요건과 관리 감독을 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선 문자재판매자를 전기통신사업자 중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자들이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시에 일정한 서류를 갖춰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관에서 직접 사업자 주소지를 방문해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거나 등록 후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문자재판매사들은 등록 직후부터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로 영업을 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자본금이 없는 사람도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금액만큼만 잠시 빌려 등록하는 편법행위로 문자재판매사를 차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재등록과 관련한 규제의 부재로 인해 이미 불법스팸 문제로 폐업한 업체가 재등록을 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불법 스팸을 전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스팸으로 얻는 사업자의 수익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김 의원에게 "현 법적체계로는 불법스팸마와 불법

스팸에 동조하는 문자사업자의 실질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또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스팸문자 발송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2021년 68.7%△2022년 67.8%△2023년 6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즉 과태료 부과로 인해 얻는 손실보다 불법 스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큰 구조 이기에 많은 문자재판매사들이 계속해서 불법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스팸문자 문제 해결 현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스팸문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 및 주요 기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국가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문자 발송사업자가 불법 문자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메시지를 필터링해서 광고나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문자는 전송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문자재판매사의 의심스러운 활동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스팸 문자의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팸 문자의 불법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실시간 신고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한 스팸의 불법 여부를 빠르게 판별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스팸 신고 시스템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또한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형태의 플랫폼(Platform)을 마련해 신고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면 스팸 문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스팸 문자 방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스팸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구글(Google)은 빅데이터를 통해 다량의 문자 메시지의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해 새로운 스팸 유형을 빠르게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이미 활용 중에 있다. 인공지능은 스팸 발송자들의 패턴을 학습하면서 그들의 변화에 따라 필터링 기준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해 진화하는 스팸 문자의 형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필터링 기술을 우리나라 대형 이동통신사 3사(SK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엘지유플러스(LG U+)△케이티(KT))에서 도입해 자체적으로 문자를 필터링(Filtering)한다면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 규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팸 문자 문제는 겉으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나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루에도 몇 건씩 스팸 문자를 받다보면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삶의 질을 저해한다. 게다가 조금만 방심해도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적절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스팸마: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

장은솔 기자 09eunsol@hufs.ac.kr

www.사사한줄토익.com

정치 지지율 17%로 전반기 마친 윤석열 정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앞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대국민 담화 후 윤 대통령은 2시간 2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인 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사회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졌다. 522,670명이 응시한 이번 수능엔 의과대학 증원 등의 영향으로 2004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많은 졸업생 161,784명이 응시했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 최중철 동국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당일 오전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감강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출제 방향을 설명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제 미국 증시 '맑음', 우리 증시 '흐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된 후 우리 증시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49,900원으로 마감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만 원 대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410대까지 떨어졌고 코스닥도 680선을 내렸다. 한편 달러 환율은 지난 13일 2년만에 1,410원을 넘어섰고 비트코인은 93,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국제 "돌아온 것 환영" 바이든, 트럼프와 회동

현지시간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하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다. 선거 기간 중 거친 말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백악관 별관의 대통령 집무실 오�피스에 나란히 앉아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고 좋은 날이 많지 않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다"고 밝혔다. 질 바이든 영부인 또한 참석하지 않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편지를 전했다.

2024 미국의 선택, 세계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

현지시간 지난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이하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접전을 벌인 끝에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하며 매직넘버 270명을 넘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경합주로 꼽혔던 7개 주를 모두 차지하며 승기를 잡은 트럼프 후보는 플

로리다(Florida) 주 웨스트 팜 비치(West Palm Beach)에서 "신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 선거가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김진아 우리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김진아 우리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부 교수

Q1.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독특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실시되는 일반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하는 승자독식제로 운영되죠.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된 △연방하원의원 435석△연방상원의원 100석△워싱턴 D.C.에 배정된 3석을 합산한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선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유세 중 귀에 총을 맞은 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는 트럼프 (출처: AP)

Q1-1.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미국의 선거 제도는 1787년 헌법제정회의에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이용해 주의 자율성과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고자 했죠.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서 각 주는 다양한 선거 방식을 시험해 왔으며 점진적인 발전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Q2.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각각 어떤 전략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의사당 난입 사태로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을 위협한 사건들을 부각시키며 이번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거라는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높은 이자율△바이든 정부 초기의 인플레이션 상승△일자리 불안 등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3.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초접전일 것이라 예상과 달리 이른 시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과대평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는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죠. 이번에도 여론조사 기관의 편향성과 민주당에 유리한 조사 결과 보도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상보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도시 노동자와 유색인종 계층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결과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Q4. 미국인들이 2020년과 달리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 중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체감과 실제 경제 지표의 간

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 정책적 차별점이 부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던 점이 주요 이유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의 투표자 수가 감소한 반면 백인 비율이 높은 공화당 우세 지역은 투표율이 높아져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5.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핵심 지역 개입 축소와 동맹국의 방위력 증대 등을 주장했기에 트럼프 2기 정부의 동맹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 상당히 다른 방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 압박정책에는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맹 재평가와 선택적 파트너십이 강조될 가능성이 큼니다.

Q6.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공화당은 선거 기간 중 호혜무역법 통과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상품에 60% 관세와 더불어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등을 언급해왔죠. 이러한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자유무역 협정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자동차나 트럭 관세 재협상 등을 요구한 바가 있는 만큼 현재 한미간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행위자인 미국의 정권 변화는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 정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은 특정 발언보다 정책 여건과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 대화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된 태도와 군사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교환 요구가 이전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공화당 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실질적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8.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높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전략*의 일환입니다. 즉 해외에서 제조한 상품의 수입을 줄이는 만큼 미국산 제조업을 활성화한다는 논리죠.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조치가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Q9. 중동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원조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면서 분쟁 종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접근은 지역 분쟁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대전략과 일치합니다.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독립 혁명 및 연방 성립의 공로자들을 일컫는 말

*온쇼어링 전략: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계획하기

외대학보 109기 수습기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최종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1차 서류전형△2차 지필고사△ 면접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마침내 합격했다 사실에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 사실 이때까진 합격했다는 사실에만 정신이 팔려 앞으로 내가 외대학보에서 겪게 될 일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외대학보에서의 활동은 내가 마냥 즐겁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꽤 힘들었고 체력 소모도 컸다. 2주에 한 번씩 밤을 새며 하는 마음을 미치고 나면 다음 날까지 그 피로가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외대학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준다. 특히 내가 자진해서 학보사에 지원했다고 말하면 "도대체 왜..?"란 표정을 지으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된 학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학보사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즐겁고 학보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던 생각에 기쁜 마음이 더 크다. 어쩌면 학보사의 모든 인원이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고 같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렇게 1000호가 넘는 신문을 발행해 온 것이 아닐까 싶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계획하기'란 구절은 스펜서 존슨(Spencer Johnson)의 '선물(The Present)'이란 책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문구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가야 한다는 굉장한 압박감에서 나를 구해준 아주 소중한 문구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매일 같이 끝이 안 보이는 블랙홀(black hole) 속에 놓여있는 것 같은 생각을 매일 같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서 감상문 작성을 위해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이 구절을 알게 됐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꽤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당시의 나는 시험에서 실수한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질책하고 학업할 수도 없는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다. 즉 현재에 집중하지 않은 채 과거와 미래를 보며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순간에도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이후 내 고등학교 생활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줬다.

물론 현재의 대학 생활도 전혀 쉽지 않다.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하며 겁이 난다. 겨우 대학 진학이란 한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거대하고 막중한 새로운 고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불안하고 겁이 나지만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되새김질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학교생활△학보사 활동 등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인 것 같다.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 그저 불안하기만 했던 미래의 대학 생활이 지금은 현재가 되었듯 현재의 막막한 미래가 언젠간 조금씩 그려지지 않을까.



한영빈 기자

[책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고]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미래를 향해 달린다. 때론 단기적 목표를 향해 또 때론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도전을 잠시 접어두고 한다. 이 책에선 이 같은 삶의 패턴을 지적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보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뒷일은 신경 쓰지 않고 즐기는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교훈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껏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

책 '죽은 시인의 사회'는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서 교사인 존 키팅(John Keating)과 6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웰튼 아카데미는 졸업생의 70% 이상이 미국 최고 명문 대학으로 진학할 정도의 미국 명문 고등학교다. 매우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 하에 학생들은 오직 명문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공부한다. 이들은 오직 부모와 학교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인 생활을 되풀이한다.

어느 날 생가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웰튼 아카데미에 새로운 국어 강사인 키팅이 부임하며 변화를 맞이한다. 키팅은 자신 역시도 웰튼 아카데미의 수재였지만 기존에 학교에서 고수하던 전통 교육 방식과 전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시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주제적인 판단과 그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그는 무엇보다 '카르페 디엠'을 강조하며 '오늘을 즐기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학생들은 처음엔 이러한 키팅의 교육 방식에 매우

당황해한다. 하지만 곧 키팅의 가르침을 따르고 조금씩 생각을 열어 나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닐(Neil)을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비밀 조직 활동을 이어가며 그동안 억압됐던 꿈과 진실을 찾아나간다.

키팅 선생의 수많은 가르침 중 특히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 봐야한다"는 말이었다. 키팅 선생은 자신이 직접 교탁 위에 올라가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좀 더 높은 곳에서 사물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교훈인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인 '역지사지(易地思之)' 또한 마찬가지로 다.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뜻인데 결국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즉 보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한 부분만을 보려고 고집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처럼 보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럴 때 마다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잠시 현재에만 몸을 맡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고 즐기며 나만의 일탈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애프터 썬'을 보고] 널 진짜 사랑해, 잊지마

'애프터 썬(After Sun)'이라는 영화와의 첫 만남은 '쓸쓸한 사랑 영화 추천 TOP3'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올라온 행복한 모습의 아빠와 딸의 포스터를 통해 이뤄졌다. '쓸쓸한 사랑'을 서로가 달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외로운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과 달리 다정해보이는 부녀를 보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길으로는 행복해보였지만 이 부녀 둘 사이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균열이 존재했다.

어렸던 딸은 아버지를 향해 깊은 애정을 느끼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깊은 내면적 고통과 불안까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영화는 성인이 된 딸이 아버지와 여행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그때는 몰랐던 아버지의 고뇌와 감정을 조각처럼 맞 맞추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기에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영화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하려 해도 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쓸쓸함을 남긴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빠는 딸 소피에게 자신의 우울감이 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의 눈엔 이미 슬픔이 가득 차 보였다. 그러나 어린 소피(Sophie)와 마찬가지로 나도 영화를 보는 동안 그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 무기력하고 게으른 아빠처럼 보였기에 그를 좋은 아빠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맥락을 단 몇 분으로 파악하려 했던 나의 판단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된다.

소피 역시 그를 이해하기 위해 아빠와의 기억의 조각을 굽어모았지만 그의 속사정까지 깊이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듯 소피와 나는 아직 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힘든 어린 나이이다. 그러나 아빠는 딸과 재밌게 놀아주기 위해 일찍 풀어버린 김스와 혼자 남겨졌을 때 눈물을 흘리는 등 그가 딸과 행복한 시간을 망치지 않기 위한 노력만큼은 선행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아빠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갑자기 '혹시 우리 아빠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며 소피의 상황을 '나에게 이입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완벽히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는 더욱 이해하지 못했던 아빠의 마음이 이제야 어렵듯이 느껴졌다. 가족 앞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혼자 있을 때 슬픔을 흘렸을 아빠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 편이 먹먹해졌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늘 힘든 감정을 삼켜내며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고자 했던爸爸的 무게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웃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눈물은 오직 그와 가족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그것을 마주하는 또 다른 한 인간의 애뜻한 시선을 통해 사랑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이 영화는 내게 평생 슬픔과 쓸쓸함의 잔향을 남길 것 같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1097호 학보를 읽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선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한층 더 분주해지고 있다. 일교차가 커진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옷차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번 외대 학보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 제도는 오랜 기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현 제도는 과거 간선제부터 제2권장 선인을 거쳐 학생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이런 외중 지난 7월 우리학교 법인 동원총회의 총장 후보 선출 제도의 변화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있어 큰 사안이 됐다. 이에 외대학보에선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현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외대학보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 반드시 학내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 선거가 이루어질 바란다.

5면에선 이탈리아어과와 융합인재대학의 학사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사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학교 측의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학교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내 활동에 더욱 귀 기울여졌으면 한다.

임채린(사회·미디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97호 학보를 읽고

세계를 위한 변화

학우들의 가벼웠던 옷차림이 무거워지며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한다. 한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더 넓은 세계를 위해 달려나가는 학우들처럼 우리학교 역시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세계를 위해 달려나가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97호에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하는 우리학교의 모습을 낱알처럼 따듯하게 다뤘다.

4면에선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를 통해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학교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동안의 역사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총장 선출 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점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동원총회의 간선제안은 학내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던 큰 단점이 있다. 총장 선출과 같은 큰 학내 문제는 학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개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가 학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개선안을 도출해나갈 바란다. 학내 구성원 특히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단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빛나길 소망한다.

5면에선 학과 및 학부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다뤘다. 학과 운영 체계의 불명확성과 공지 누락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학생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을 이뤄낸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학교 생활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은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그러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통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창구와 소통방식을 통해 각종 교내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7면에선 책과 멀어진 청년층의 독서위기를 주제를 다뤘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의 원인으로 △시간 부족 △현상과 양한 매체△시간 부족을 제시했다.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 사회의 청년층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독서를 통해 길러지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준비를 하는 대학생에게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독서인 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이 독서와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학내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들로 구성된 기획 기사와 심도 깊은 청년층의 사회문제까지 다룬 이번 1097호는 학교 공식 언론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호였다. 나 역시 학교를 다님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외대학보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학생들이 읽어야만 하는 신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빛이 나길 바란다.

지유솔(응인23)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올라운드 플레이어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는

김지한

스포츠 기사를 만나다

김지한 기자(서양어·독일어 04)는 현재 매일경제 문화스포츠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골프△배구△야구△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기사를 12년 동안 작성해 왔다. 이러한 그는 현재 신문을 넘어 라디오 및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올라운드 플레이어(all-around player)'가 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독일어 공부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며 언론정보 및 미디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자 했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주어진 일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결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다른 학생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기△선배△후배와 만나면 과거에 제가 한 노력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기억해 줘서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최대한 틀에 갇히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미디어 다음(Media Daum)'이란 포털 사이트에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를 보며 느낀 점들을 기사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학 중 외부 신문사의 프리랜서(Freelancer) 기자가 됐고 해당 신문사에서 지난 2006년 개최된 독일 월드컵(World Cup)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Q2-1.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독일어과 축구 동아리 '로카(Roka)'에서 기술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로카는 독일어로 '로테 카르테(Rote Karte)'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는 레드 카드(Red Card)를 의미해요. 레드 카드를 받을지언정 몸을 사리지 말고 후회 없이 뛰자는 의미를 담아 팀의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팀에서 전 선수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팀의 전술을 고민하고 경기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선수를 적절히 기용하는 감독의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했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로카'에 가입했을 때 기술고문이란 자리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1학년이었기에 동아리 내에서 위치가 애매했는데 축구에 대한 제 열정과 능력을 믿어준 다른 선배들이 기술고문이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술과 선수 기용에 의심하지 않고 따라줬습니다. 이후 우리학교 월드컵이나 서양어대 유로컵(Euro Cup)에서 우승하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축구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3. 스포츠 기자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기자가 되고 싶긴 했지만 반드시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스포츠 기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떠오르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박태환 △손종오 △이영대 △이효정 △장미란 등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즐겨봤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보며 선수들의 숨겨진 △눈물 △이야기 △꿈 등을 기사로 작성하고 싶단 마음이 문득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1월부터 축구 및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기사로 작성해 블로그(Blog)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개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도 다녀왔습니다. 약 3년 3개월 동안 스포츠 기사를 작성해 블로그에 게시했지만 2012년 일간스포츠에 입사하며 중단하게 됐습니다.

Q4.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면서 겪은 고충이 궁금합니다.

스포츠는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보통 저녁 시간에 열리는만큼 퇴근이 늦어진다든 것도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전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갑작스레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땐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농구 △오프암(Off-Arm) △배구 그린카드(Green Card) △야구 자동투구판정시스템 도입 등 스포츠별로 매해 규칙이 조금씩 변경되기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스포츠 기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5. 일을 하면서 보람됐던 순간이나 뿌듯했던 일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림픽 현장 취재에 대한 보람이 컸습니다. 하계올림픽 및 동계올림픽을 각각 2회씩 취재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취재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올림픽 개

최 4년 전부터 각 종목과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가을 및 겨울 시즌에는 평창과 강릉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취재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스키톤(Skeleton) 스타 윤성빈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창올림픽의 △교통 △숙박 △음식점 △준비상황 등 미흡했던 기반 시설을 지적하는 연속 기획물을 작성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2017년 3분기 기획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Q6. '스포츠 저널리즘은 오락 부서(Toy Department)'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은 단순히 오락만을 전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 언론이 스포츠에 관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스포츠의 순기능은 먼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당시 국민들은 스포츠 아레 하나로 모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감동 △분노 △슬픔 △희망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를 전달하는 스포츠 저널리즘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스포츠 기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입니다. 보통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스포츠 속엔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포츠 기자는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자에게 스포츠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자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만큼 친화력을 기르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Q8. 라디오 및 방송과 같은 각종 매체에 출연하시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방송 △신문 △온라인 △잡지 등 모든 분야를 경험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스포츠 기사 작성 △외부 매체 기고 △KBS1 라디오 출연 등의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디어가 △방송 △신문 △잡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방송이나 잡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기자 한 명의 '멀티플레이(Multi Play)'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미디어는 다양해졌고 기자 개인이 갖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활동 영역을 한정 짓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Q9.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가 궁금합니다.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포츠계에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과 만나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 남다른 시각으로 차별화된 기사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Q10. 스포츠 기자를 지망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동아리 △사회 봉사 △아르바이트 △여행 등 어떤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기반이 된다면 좋은 글과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 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의 올림픽과 3번의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며 해외에서 취재할 일이 많았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기자 생활에 분명 도움이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유익한 능력입니다. 자신 있는 외국어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정말 사랑한다면 스포츠 기자로써 '성공한 덕후'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가까이서 인터뷰하고 지켜보는 것은 스포츠 기자가 갖는 큰 즐거움입니다. 물론 일과 취미는 다르기에 스포츠 기자로서의 삶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스포츠를 사랑한다면 좋은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